

주제 :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찬미 예수님.

우리의 삶에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기에, 절대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어폐(語弊)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조금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우리들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하찮게 여기며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첫머리에 돈과 우리 삶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묵상할 것을 권하는 오늘의 성경말씀과 연결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본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 대답은 별로 다양하게 나올 성격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개도 안 먹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싸우고 큰소리칠까?’ 라고 말입니다. 스쳐지나버릴 수도 있는 말인데, 그것 참 색다른 표현이다....하고 생각했습니다.

개는 사람들처럼 삶에서 약속으로 정하고 사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포함하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것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개와 같은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가치를 낮추어보는 동물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하느님께서 세상의 선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자비의 영역에 속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던 부자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청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서 포기할 수 없는 재산을 많이 가졌는데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과정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살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자청년은 하느님의 자비를 얻고 찾으려는 쪽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더 확실한 보장(!)으로 보이는 돈과 세속의 재물로 돌아갑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재물과 하느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삶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얻고자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하고, 때로는 내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내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일곱 개의 복이 있다’는 유행가 가사’도 있습니다만, 한번 잘못 선택하고, 두 번 올바르게 못하게 선택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네 삶을 힘겹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옳은 길을 알고 있고, 내가 옳은 길을 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는 않는 삶을 삽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복음에 등장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법은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가르쳐주신 것은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아무런 불만 없이 잘 지켰다고 자신했던 청년은 인간의 조건에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주실 자비에서 스스로 멀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고집을 더 크게 생각했던 청년이 살았던 때보다, 100년 쯤 먼저 쓰인 지혜서는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실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청하고 그 지혜를 정성껏 받아들였더니, 그 지혜가 자기 손에 값진 재산을 들고 왔다고 전합니다. 지혜가 정말로 우리가 요즘 생각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오는지 그 말씀에 나오는 뜻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질 일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 세상의 지식은 분명히 그 품격을 달리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독서

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대하면서도 세상의 것처럼 소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소리는, 우리를 찾아온 하느님의 축복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하게 건너뛸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느님의 것을 합당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 하느님의 지혜도 올바르게 대할 수 있으려면, 그 하느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함께 청해야 할 일입니다.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09년 10월 4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817.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255.00 181(10) 188(20) 194(20) 201(5) 205(20) 207(10) 217(10) 222(20) 224(50) 226(40) 227(20) 234(10) 240(20)
성전건립 : \$ 20.00 212(20)
(성모동산 누계 : \$ 4875.00)
합 계 : \$ 1092.00

알려 드립니다.

이번 자연 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정성 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당 소 식

◎ 오늘 미사후에 확대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각 단체장, 구역장도 참석 바랍니다.

◎ 이민자의 날 미사 안내 (10월 18일 2시)

해밀턴 주교좌 성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12시까지 본당으로 모여 차량을 동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날 미사에 해밀턴 본당 성가대가 우리 본당 성가대와 함께 성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의 한인 공동체는 **봉헌 성가 332장과 342장, 신앙의 신비 373장, 아멘 378장 그리고 퇴장성가곡으로 84장, 416장**을 준비해 주심사는 연락이 왔으니 각자가 연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교좌성당 주소: 700 King Street West Hamilton

◎ 태양초 고춧가루 판매 안내

이번에 런던 성당 바자회 행사와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도산 태양초 고춧가루를 판매합니다. 1Kg에 \$40불 예상입니다.

문의 및 구입은 한 데레사 성모회총무에게 해주세요 (한정 분량입니다. 서두르세요)

◎ 10월 구역모임 안내

- ▷ 브랜포드: 미정
- ▷ 캠브리지: 24일 6시 박용대 형제택
- ▷ 키치너: 24일 6시 교육관
- ▷ 워털루 1구역: 미정
- ▷ 워털루 2구역: 24일 6시 이 동기 형제택
- ▷ 워털루 3구역: 24일 6시 김 손권 형제택
- ▷ 워털루 4구역: 24일 5시30분 이 상재 형제택

◎ 본당 홈페이지 오픈

주소 : www.kwpaul.com

▷ 홈페이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은 한택중 막시모 형제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 519 279 4005

◎ 10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2구역입니다.

- ▷ 11월 : 청소년부
- ▷ 12월 : 사목회의

◎ 교육관/사제관 관리 일정

- ▶워털루 3구역 10월
- ▶워털루 4구역 11월

◎ PARISH LIFE CENTRE 기금 마련 음악회 안내

일시 : 11월 13일 (금) 오후 7시 30분

티켓 : 성인 \$ 10, 어린이 \$ 5

문의 : 성가대 단장 문혜라 크리스티나

판매대금은 10월 25일까지 사목총무에게 전달해 주세요

가난한 새의 기도

- 이해인님 -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필요한 만큼만
동지를 틀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오직 사랑하나로 눈물속에도
기쁨이 넘쳐날 서원의 삶에
햇살로 넘쳐오는 축복

나의 선택은 가난을 위한 가난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가난이기에 모든 것 버리고도
넉넉할 수 있음이니

내 삶의 하늘에 떠 다니는 흰구름의 평화여
날마다 새가 되어 새로이 떠나려는 내게
더 이상 무게가 주는 슬픔은 없습니다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미사 전 20분

22009-41호

2009. 10. 11.

연 중 제 28 주일

해설 이정숙

차주 해설 고영호

성 가

입 당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 체 (152) 오 지극한 신비여

퇴 장 (38) 행복하여라

화 답 송 ◎ 주님,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독 서

10월 11일 장명길 장용경

10월 25일 박재영 박경미

봉 헌

10월 11일 윤명원 윤명희

10월 25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10월 11일 안아림 노승범

10월 25일 구하람 김근영

친 교

10월 11일 성모회와 브랜포드 구역 협조

10월 25일 성모회와 캠브리지 구역 협조